

내일 지방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경북, 9급 행정직 등 1715명 선발

출원인원 1.8만명... 경쟁률 10.3:1
도내 6개 권역, 42개 시험장서 실시
7월8일 합격발표, 면접 8월2일부터

경상북도는 2021년도 제1회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을 5일 도내 6개 권역 42개 시험장, 912개 시험실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치러질 시험은 9급 행정직 등 32개 직류 1715명을 선발하는 대규모 공채시험으로 출원인원은 1만 7655명으로 평균경쟁률은 10.3:1로 나타났다.

올해 공채시험에서는 코로나19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시험에 응시 가능하게 됨에 따라 질병관리청 보건소 소방본부의료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만일의 상황에 대

비했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별도시험장 응시신청서'를 작성하여 6월 4일 오후 6시까지 경상북도 인사과 인재채용팀으로 제출할 경우 시험응시가 가능하며, 신청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다.

또한, 시험장별 방역책임관을 지정하여 방역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시험 전후 시험실, 화장실 등 응시자 사용시설에 대해 전문업체를 통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응시자 입장시 발열증상(체온 37.5℃이상, 기침 등)이 있으면 재검사 후 시험장별 마련된 예비시험실에서 따로 응시토록 하는 등 예방조치로 응시자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최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응시자는 반드시 경상북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된 필기시험 장소 공고문을 통해 해당 시험장을 확인한 후, 시험 당일 응시표와 신분증, 컴퓨터 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9시 20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향후 시험일정으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7월 8일 ▲면접시험은 8월 2일 ~ 8월 27일까지 ▲최종합격자 발표는 9월 9일에 있으며, 경상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이장식 경상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확진자도 시험 응시가 가능한 대규모 시험인만큼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응시자의 안전을 위한 철저한 방역대책으로 시험사행에 만전을 기하고, 이에 못지않게 엄정한 시험관리를 통해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경북=김귀열 기자 gold6830112@metroseoul.co.kr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안전하고 신속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안군, 안전·신속 백신접종 총력전

75세 이상 어르신 이송대책 지원

신안군은 안전하고 신속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 행정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4월 15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노인시설과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동의자 5914명중 1차 접종 4085명(69%), 2차 접종 2665명(45%)을 완료하였으며, 미접종자는 6월 1일부터 신규 접종을 시작하여 6월 말까지 75세 이상 어르신의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60~74세를 대상으로 5월 27일부터 6개 위탁의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시

행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도 3일 만에 12%의 접종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위탁의료기관 사전예약률은 70%로 전국 평균(68%)를 넘어섰다.

위탁의료기관이 없는 도서산간지역의 보건지소 접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접종이 허용됨에 따라, 60~74세 위탁의료기관 미접종 어르신과 75세 이상 예방접종센터 미접종 어르신은 6월 8일부터 보건지소에서 접종이 가능하며, 보건지소 접종이 시작되면 접종률은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신안(전남)=안행주 기자 abcd@

부산지역 영화·영상콘텐츠 육성 나선다

기보, 부산국제영화제 등과 업무협약
우수콘텐츠 보유 기업 발굴·금융지원

기술보증기금이 부산지역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

기보는 지난 2일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부산영상위원회에서 (사)부산국제영화제, (사)부산영상위원회와 '영화, 영상 등 문화콘텐츠산업 중심 도시 도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기보는 지난해 부산지역 영화산업 육성을 위해 영화의 전당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코로나19로 침체된 부산지역의 영화, 영상 등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우수 콘텐츠를 보유한 문화콘텐츠산업 영위기업 발굴 및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부산지역의 영화, 영상 등 문화콘텐츠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상호 추천, 금융지원 및 우수 콘텐츠 발굴 육성을 통해 부산이 문화



(왼쪽부터)기보 장영수 부산지역본부장, 부산국제영화제 강승아 부집행위원장, 부산영상위원회 김인수 운영위원장이 협약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콘텐츠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데 협력과 지원을 함께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보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2016년 국내 최초로 문화콘텐츠산업 전담 영업점인 문화콘텐츠금융센터를 설치했다. 또 올해 1월에는 대전문화콘텐츠금융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전국에 4개의 문화콘텐츠 전담 영업점을 구축하고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기보 장영수 부산지역본부장은 "기보는 2018년 부산문화콘텐츠금융센터를 설치해 부산지역의 영화, 영상 등 문화콘텐츠산업 영위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영화, 영상 등 K-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벼 저온성해충 적기 방제로 피해 줄여야

상주농기센터, 일교차 커 주의 당부

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손상돈)는 모내기 이후 5~6월 평균기온이 전년대보다 낮고 최저기온이 10℃이하로 내려간 일수가 많아짐에 따라 큰 일교차로 인한 저온성벼 해충인 벼잎물가피리, 벼물바구미 등의 밀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적기 방제를 당부했다고 3일 밝혔다.

벼물바구미의 성충은 벼 잎을 세로로 줄지어 갇아먹으며, 유충은 뿌리를 갇아먹기 때문에 뿌리가 끊어져 피해를 본 포기는 잘 자라지 못한다.

벼잎물가피리는 모내기 직후 눈에

성충이 침입해 수면 위를 걸어 다니다가 주로 수면에 늘어진 잎에 산란하고, 유충은 부화 직후 벼 잎에 침입하여 잎맥을 따라 전진하면서 굽을 파고 피해를 입힌다.

벼의 저온성해충은 기온이 낮은 경우 산란율과 생존율이 높아져 모의 잎과 뿌리에 피해를 주며 적기에 방제를 하지 못할 경우 모내기 한 논에서 초기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업기술센터는 저온성 해충 방제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병해충 예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상주(경북)=김홍기 기자 g2136@

광양시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광양시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출산의 전제조건인 '청년층 결혼'을 독려하고자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청년 부부, 부부 모두 만 18~49세여야 하며 한 명은 반드시 초혼이어야 한다. 또한,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한 명은 전라남도내 1년(광양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12개월 이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광양(전남)=김용학 기자 jjaacecom@

영암군, 18.4억 투입 자투리땅 녹지 조성

고사목 제거, 제초작업 등도 병행

영암군은 생활권 내 지속적인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추진하며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권을 만드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유휴지와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며 지역민의 건강과 정서함양을 위해 조성한 소공원 및 썬지움의 수목 바로 세우기, 고사목 제거, 제초작업, 병해충 방제, 전정, 밀식수목이식 등을 통해 아름다운 녹색경관을 유지 관리하고 있다.

특히 사회단체와 주민이 함께 숲을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숲돌보미 협약체결 등 도시녹화운동을 전개하여 범군민적 참여운동으로 발전시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군은 금년에 18억4000만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도심 내 자투리땅과 유휴지를 활용한 녹색썬지움,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숲을 확대해 나가며 공동체정원, 도심권생활정원을 조성, 주민공동체의를 고취하고 소통과 힐링의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국도2호선 가시나무길, 국도13호선 소나무길, 삼호터미널-삼호대교 방면 빛나무길 등 군의 주요 노선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금년에는 3억5000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미암면 춘동리, 서호면 청룡리, 금정면 연보리, 삼호읍 용양리 총 4개소에 이팝나무, 산딸나무, 황금사철나무 등을 식재하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영암군 이미지를 제공할 방침이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아름다운 녹색경관을 유지·보전하면서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적극 추진하여 누구나 보고, 살고 싶어할 지역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암(전남)=김희선 기자 khs161700@

영양군, 직원·주민 '사랑의 헌혈' 참여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3일 직원 및 관내주민이 참여하는 '2021 사랑의 헌혈 및 장기기증희망등록' 행사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

헌혈 및 장기기증은 소중한 나눔으로 생명을 잇고 생명을 살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다.

이번 헌혈운동은 대한적십자사대구/경북혈액원의 협조로 영양군청 전정에서 이동식 헌혈차량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영양군청 직원 및 평소 헌혈의 집이 없어 참여를 못한 군민들의 자발

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이날 모든 참가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개인위생 점검 및 발열·호흡기 증상을 철저히 확인받고 행사에 참가했다.

영양군 오도창 군수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작은 나눔이 큰 희망과 용기가 된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참여하기 쉽지 않은데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여해준 모든 분들의 마음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